

여성의 대인 의존심이 성적 성가심 대응 반응에 미치는 영향

신성자*

- I. 서론
- II. 문헌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조사 결과
- V. 요약
- VI. 결론 및 실천적 함의

I. 서론

1. 문제제기

직장에서의 성적 성가심(sexual harassment)¹⁾ 문제는 여성의 직장 활동의 역사만큼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신성자(1),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집, 경남대학교, 1993, 5, pp.94.

신성자(2), “직장에서의 성적 성가심 경험이 직장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의식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0권 경북대학교, 1994, p.151.

성적 성가심(sexual harassment)은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가벼운 형태의 성적 농담으로부터 강간에 이르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성적 성가심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친숙한 개념인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학대”(sexual abuse), 또는 “성희롱”(sexual flirtation)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

그 기원이 오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여성들의 성적 성가심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제의 만연성과²⁾ 성적 성가심이 주는 피해를³⁾ 고려한다면 성적 성가심 문제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단일 문제로는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비록 미비하지만, 성폭력법,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 장치⁴⁾ 한층 강화된 것은 직장에서의 성적 성가심 문제를 포함한 성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해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성적 성가심 연구의 개척자인 MacKinnon⁵⁾을 포함한 구미의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남·여 성(gender)간의 힘(power)의 불평등과 성역할(sex-roles)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한 남성들의 강압적 성행동에 대한 사회의 수용적 통념을 성적 성가심 발생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남·여 불평등의 사회 구조적 개선과 올바른 성 이데올로기의

나, 어휘의 개념상 상당히 폭넓은 성격의 다양한 성적 행동을 포함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과 적용대상이 주로 조직(직장, 학교등)속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구미에서는 학계에서나 사회일반에서 타유사 개념들과 구별되어 사용되어왔다. “성적 성가심 (se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메스콤에서는 주로 “성희롱”(sexual flirtation)이라는 용어로 소개하였다. 성적 성가심은 단순한 성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서 상대적 강자인 남성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성적표현을 빌어서 괴롭히는 남·여간의 힘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sexual discrimination)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주로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놀리고 즐긴다는 뉘앙스는 강하나 성차별의 의미는 다소 약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희롱이라는 용어 대신 “성적 성가심”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 2) 신성자(1), 앞글, pp.101~102. 약 92%의 응답자(직장여성)들이 남성상사나 동료로부터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성적성가심 경험을 보고하였다.
- 3) 신성자(1), 앞글, pp.99~101. 직장에서 남성(상사, 동료)들로부터의 원치않는 성적관심 또는 성적행동으로 인해 여성들은 다양한 심리적고통(당혹감, 분노, 우울감, 모독감, 굴욕감, 수치감, 혼돈감, 혐오감, 마음졸임, 위협감, 죄책감등), 신체적 제증상(수면장애, 두통, 식욕감퇴, 체중감소, 복통등), 그리고 직무수행상의 어려움(집중력 산만, 의욕상실, 능률저하, 결근등)을 호소하였다.
- 4) 신성자(2), 앞글, p.151.
- 5) MacKinnon, C. A.,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79, p.216.

확립이 성적 성가심 문제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system)의 변화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적 성가심 문제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을 시급히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위한 사회사업의 개입은 시급하다.⁶⁾

사회사업실천 (social work practice)에서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mental health)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의의 분배(psychological distributive justice)⁷⁾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여간의 힘(power)과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에서 기원하는 성적 성가심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의 필요성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또는 성적 행동”인 성적 성가심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성가심은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개념이기도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성적 성가심 문제를 위한 대책 방안은 성적 성가심에 대한 남·여 개인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화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관한 학계에서의 연구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발표한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관한 선행 연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요 발견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조사에서 발견된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은 첫째, 비록 성적 성가심 행동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⁸⁾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직장 여성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둘째,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여

6) 신성자(3), “직장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관한 연구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에서의 위계측면에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1호, 1993, 5, p.93.

7) Wakefield, J., “Psychotherapy, Distributive Justice, and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1988, pp.353~382. 신성자(3), 윗글, p.92.

8) 신성자(3), 윗글, p.109, 다양한 성적 성가심 행동들 중에서 응답자들은 “성요구형”에 속하는 성적 성가심에 가장 불쾌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협박형”, “뇌물형”순이었고 “사회문화형”과 “성적 유혹형” 성적 성가심에는 응답자들이 다소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성들이 불쾌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 경향은 성적 성가심 성격이 비교적 덜 심각할 때 더욱 더 두드러진다.⁹⁾ 여성들이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서 불쾌감은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은 대체로 떨어지지만, 성적 성가심의 유형 또는 특성별 성적 성가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대응 반응과 상대적으로 거의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인식하면서도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 주장적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들이 심리적 억압을 많이 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는 대응 수준이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정도가 심한 여성일수록 사회사업 실천에서의 임상적 관심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성들은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이나,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응하는 정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나, 또는 성적 성가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정도에 비해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성적 성가심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불쾌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불쾌감을 상대에게 잘 표현하며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좌절이 훨씬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9) 신성자(3), 윗글, pp.111~112, 직장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사회문화형”과 “성적유희형” 성적 성가심에서는 응답자들이 “성요구형”, “협박형” 또는 “뇌물형” 성적 성가심에 비해 덜 부정적인 대응 반응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소극적인 여성들을 일차 사회사업 개입을 위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첫 작업으로, 여성 심리의 대표적 특성으로 간주 되어온 개인의 “대인 의존성(interpersonal dependency)”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개인의 대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들의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강조되어 온 각종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사회 지지체계(support systems)라는 상황적 변수 이외에, 여성들 자신의 대인 의존성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그들의 대처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 봄으로써 사회사업 실천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II. 문헌 연구

대인 의존성(Interpersonal Dependency)

대인 의존성은 성역할(sex-roles)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한 여성들의 심리 특성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여러 심리학 이론에서 소개되어 왔다.¹⁰⁾ 관련 주요 이론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보상과 벌에 의한 모방과 강화(reinforcement)가 성역할 사회화의 주요한 수단(major vehicles)이라고 보면서 아동들은 강화의 근원인 부모들을 가장

10) Cook, E.P., Psychological Androgyny, Pergamon General Series, Pergamon, New York, 1985, p.89.

쉽게 모방하며 학습한다고 주장한다.¹¹⁾ 특히 아동들은 동성의 부모를 모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¹²⁾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한국 가정에서 가족 생계의 공급자(provider) 역할을 주로 맡은 아버지와 가장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여자 아동들은 힘(power)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성(relatedness)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학습할 것이다. 성장하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것이 여성답고, 자신들의 필요한 욕구(need)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에 어떻게 의존해야 되는지를 가정에서나 밖에서 언어, 대중매체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깨닫고 배우게 된다. 즉 여자 아이들은 그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존적이어야 한다¹³⁾는 것을 성장하면서 터득하게 된다. 사실 성역할이 뚜렷한 사회에서 남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의존적인 행동은 수치스럽게 평가하지만 여자 아이의 의존심은 여성다움으로 오히려 장려된다.

2. 신 정신역동학의 여권 이론가 (Feminists in Neo-Psychodynamics)

Chodorow, Dinnerstein, Gilligan 등¹⁴⁾ 여러 유명한 여권론적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

11) Mischel, W., “Sex-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Wiley, New York, 1970.

12) MacCoby, E.& Jackline C. (eds),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dford Univ. Press, Standford, CA, 1974.

13) Sargent, A., Beyond Sex-Roles, West Publishing Co., St. Paul, MN., 1977. p.382.

14) (1)Chodorow, N.,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8. (2) Dinnerstein, Dorothy, The Mermaid and the Minotaur : Sexual Arrangement and Human Malaise, Harper & Row, New York, 1976. (3)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 Review, Vol. 47, pp.481~517.

으로 삼는다. Dorothy Dinnerstein, Nancy Chodorow는 여성의 관계성의 특성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주 양육자(primary caretaker)인 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역할은 아동의 성(性)과는 관계없이 여성인 어머니가 맡는 것이 인간 사회의 관습이다. 남자 아기는 성장해가면서 자신이 남자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주로 돌보아준 어머니가 자신과는 성(性)이 다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와 동일한 성임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와 점차 분리하여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된다. 남자 아이의 남성적인 동일시는 어머니의 여성성(femaleness)의 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⁵⁾

반면 여자 아이는 성(性)이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남자 아이가 어릴 적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경험하는 분리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동성인 어머니와 계속적으로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self-connectedness)을 갖을 수 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연결감(sense of relatedness)을 유지케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과 공감(empathy)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이유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Bedard는 여성들은 유아 초기부터 다른이(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우호적으로 사랑스럽게 잘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고 주장한다.¹⁶⁾

요약 정리하면, 남자 아이들의 정체감은 어머니와의 구별(difference), 분리(separateness), 그리고 독립심 등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여자아이의 정체감은 동일성인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연결감, 집착(attachment)등에 근거하여 관계성(relationality)의 특성을 갖게 된다.

15) Wine, J., "Models of Human Functioning : A Feminist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8, 1977. p.189.

16) Bedard, M. Toward a Feminist Theory of Human Development : Creating a Consciousness of Wholen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1989, p.183.

남성들의 주 관심이 이성(reason)인데 반해, 여성의 주 관심은 돌보아 주는 것(caring)임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도덕감은 다른 이들을 돌보아 주는 윤리에 근거하는 데 연결(connections)과 관계(relationship)에서 부터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타인을 돌보며 타인과의 연결성 속에 자신의 정체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는 자기 지향적이고 자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기 쉽다. 오히려 그러한 자기 지향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은 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interrelatedness)에 대한 가치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나 분노 등을 명백하게 표현하여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까 두려울 것이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여성들은 분명한 자기 정의를 하기보다는 상황적이고 타인 지향적으로 반응하면서 안전선 안에 머물려고 한다. "Kashan은 이러한 특성을 침투성(permeability)이라고 표현하였는 데¹⁸⁾ 침투성은 여성성의 핵심적인 구성소라고 설명하였다. 즉 여성에게 침투성은 관련을 맺으면서 안전을 얻는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때문에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도 자신의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추측된다.

3. 남성 지배 사회에서의 남녀 힘의 불평등

여권론적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의 배경을 주 양육자(primary caretaker)역할을 여성이 맡는 사회적 제도(social arrangement)때문이라고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설명하였다. Miller는 여성에게 아동의 주 양육자 역할을 맡게 하

17) Kaplan A. G., "The Self-in-Relation : Implications for Depression in Women", Work in Progress, Stone Center for Developmental Services and Studies, No.12, Wellesley College, 1984, pp. 1-9.

18) Kashan, E., "Limit and Boundaries : Toward a Complex Psychology of Women", Women and Therapy, Vol. 7(4), 1976, pp.109~123.

는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결정 짓는다는 여권론적 정신역동 이론가들의 설명을 넘어서 남·여 위계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위치에서 여성심리 특성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iller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단지 이분화된 구성(dichotomous construct)이라기 보다는 위계적인 구성으로 이해하면서 성역할의 위계적 개념(hierarchical concept)을 강조한다.¹⁹⁾

부권문화에서 남성성은 지배(dominance)라는 등식이 성립되듯 여성성은 복종(subordination)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복종이라는 성적 위계(sexual hierarchy)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종속 계급(class)에 속해 있는 구성원인 여성²⁰⁾이 자기 자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힘(power) 있고 중요한 의미있는 존재(남성)와 그 자신과의 관계성 안에서 약자(여성)으로서의 안보감(sense of security)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요약 정리하면, 대인 의존성에 대한 중요한 가치 때문에 사회적 강자인 남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여성들의 자기 주장적 행동은 상당한 제약과 함께 여성들에게 자기주장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녀 힘의 위계구조가 매우 뚜렷한 대부분의 직장 조직에서 대인 관계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국(confrontation)하기란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한 여성들의 내부의 감정(inner feeling)과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outer action)의 차이(split)는 여성들의 자기 보호적이고 순응적 메카니즘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감정과 외부행동의 균열(split)현상은 여성들의 대인 의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19) Miller, J. B.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eacon, Boston, 1976.

20) Bedard. M., 앞글, pp.vi, 188. 192.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가설 1.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보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여 대응하는 수준(강도)이 훨씬 높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보다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강도)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가설 2.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은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인식하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은 성적 성가심에 대응하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가설 3.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은 대인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반면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불쾌함을 표현하여 대응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여성은 대인 의존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평등한 가정 환경에서 양육된 여성은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 환경에서 양육된 여성들보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함을 표현하는 대응수준(강도) 자체가 높을 것이다.

가설 5.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여성들은 부모가 동등한 상호작용을 한 가정에서 양육된 여성보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이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부모가 동등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여성은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에 비해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자기주장적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발표한 선행연구(1993)²¹⁾에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 셋트를 재분석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 T-검증, LSD-검증, 단일 변량 분석(one-way ANOVA), SNK-검증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조사분석에 사용된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 대응반응(R), 인식과 대응 반응 간의 차이(DIS)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직접 개발하여 소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 의존성을 측정하는 척도(ID)는 미국에서 Hirschefeld와 그 일파가 발표한 대인 의존도를 측정하는 척도(IDI)를 구성하는 문항내용들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번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2명이 각각 번역한 내용을 합의에 의해 조정하였다. 척도 개발을 위해서 빈도분석, 교차분석,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의 통계방법이 활용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계수 검증을 하였다.

3. 표본의 특성

서울 및 서울근교 회사(11개)에서 일하는 직장여성(736명)으로 대부분(86%)이 20대에 속하는 젊은 (평균 연령 23세) 미혼 여성들(93%)로 고졸학력(90%)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학졸업자는 약 10%정도이다. 직업분포는 사무직이 가장 많고 (65%) 그 다음이 단순 생산직 (21%), 전문직(8.5%), 기능직(5.7%)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21) 신성자(3), 앞글, p.102.

4. 변수 구성 및 개념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

변수내용	변수이름 (약어)	해당척도 (Scale)	해당가설
1) 대인 의존성(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타인의 영향을 받는 정도)	ID	ID	가설 3
2) 성적 성가심에 대한 외적 대응 반응(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	R	R	가설 1,4
3)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	I	I	가설 2
4)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간의 차이(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정도의 차이)	DIS	DIS	가설 5

독립 변수

변수내용(조작적 정의)	변수이름 (약어)	해당척도 (Scale)	해당가설
1) 대인 의존성	ID	ID	가설 1,2
2)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반응 유형(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상대적 비교)	I-R	I-R	가설 3
3)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PARIP	PARIP	가설 4,5

5. 척도소개

1) 대인의존성(ID)

응답자들의 대인 의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Robert M. A. Hirschfeld., Gerald L. Klerman, 그리고 Harrison G. Gough등이 대인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한 척도(IDI: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22)내용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Hirschfeld, Klerman 그리고 Gough가 만든 원래의 IDI 척도(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의 이론적 기반은 지나친 의존심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disorders)를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신 분석학,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애착(attachment)이론²³⁾ 등이 혼합된 것이다. IDI 척도는 4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정서적 의존도(emotional reliance), 자신감 결여도(lack of self-confidence), 그리고 자율성(assertion of autonomy) 등의 특성을 가진 3개의 하위 척도(subscales를 포함하고 있다. IDI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보고되었다.²⁴⁾

IDI척도 활용을 위해서 제 1단계로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IDI²⁵⁾ 척도내용을 그대로 본 연구의 표본인 응답자(736명)를 대상으로 Cronbach α 계수 검증을 통한 신뢰도 검

22) Hirschfeld R. et al.,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7. pp.610~618.

23) Corcoran, K. & Fisher, J.,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 A Source Book, Free Press, 1987, p.23.

24) 세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검증에 의해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보였다 : 정서적 의존도(.87), 자신감 결여도(.78), 자율성(.72). 정신병환자와 정상인과의 두 집단 간의 척도 점수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여 IDI 척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IDI 척도는 기존의 다른 검증도구(MMPI, Mandley의 Personality Inventory, Anxiety, Interpersonal Depression Symptom Checklist-90) 와도 상당히 좋은 유의도를 보여주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5) 각 항목별로 응답자들은 Likert 방식에 의해 1~4중 1개를 택하여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예, 4=나의 특성과 대단히 같다. ... 1=나의 특성이 아주 아니다.).

증을 신뢰해 본 결과 .7 를 못미치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²⁶⁾.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IDI척도의 문항 내용이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응답자들에게 다소 생소하다는 점(예, 파티, 사고모임 방법 등에 관련된 질문 등), 또는 문항 내용에서 외국어의 표현상의 생소함(예, “나는 나 스스로이고 싶다” 등) 등으로 인해 문항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정도가 다소 어려워져 각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항들을 일차 제외시켰다.

상관 관계 요인 분석 등 통계 절차를 거쳐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할 대인 의존도 척도(ID)구성 문항으로 37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²⁷⁾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ID척도는 세계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전체 ID 척도의 신뢰도도 대체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²⁸⁾

척도(ID)의 점수계산(scoring)을 위한 공식(formula)은 다중 회귀분석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Y = a + bERO + cLSD + dAA + eCov1$$

Y(대인 의존성)은 제1하위 척도인 ERO(정서적 의존도)점수와 제2하위 척도인 LSD(자신감 결여)점수를 합하며, 제3하위 척도인 AA(자율성)의 점수를 역(-)으로 더한 후 Cov1값을 합한 값에 의해 측정된다. Cov1은 제2하위 척도인 LSD와 제3하위 척도인 AA의 상호작용(mutual action)을 의미하는데 두 하위 척도(LSD, AA)의 척도를 곱한 후에 두 하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수의 값(23)으로 나눈 값이다.

2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 계수가 .7 정도가 될때 만족스러운 신뢰도로 간주한다.

27) Kaiser의 기준에 의해 특정치(eigenvalue)가 1.0 보다 큰 세 요인만 택하였다.

28)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검사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있는 Cronbach α 계수값을 알아보았다.

세 하부 척도(척도명)	문항수	신뢰도(Cronbach α 계수)
정서적 의존도(ERO)	14	.71
자신감 결여도(LSD)	12	.70
자율성(AA)	11	.69
대인 의존성 ID	37	.70

다중회귀분석후에 외성 변인들(exogenous variables)비교의 편리를 위해서 Beta계수 값(각 계수의 표준값)으로 추정등식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였다.

$$Y=0.58ERO + 0.41LSD - 0.48AA + 0.13Cov1$$

이 등식에 의하면, 대인 의존성(ID)은 정서적 의존도(ERO)와 자신감 결여(LSD), 자신감 결여(LSD)와 자율성(AA)의 상호작용(Cov1)과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자율성(AA)은 대인 의존성(ID)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쉽게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인 의존도를 측정하는 ID 척도의 평균점수(mean)가 122.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한국 직장 여성들의 대인 의존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인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척도(ID)는 정서적 의존성(emotional reliance), 자신감 결여(lack of self-confidence), 자율성(assertion of autonomy)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IDI 척도는 높은 신뢰도 뿐만 아니라, 정신병 환자 집단과 정상집단간의 IDI 척도 점수의 뚜렷한 차이를 제시하면서 만족스러운 타당도를 입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ID 척도는 신뢰도 검증만 제시하였고 뚜렷한 타당도 검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 조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과정에서 대인 의존도가 높은 집단과 대인 의존도가 낮은 집단간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검증된 것은 ID 척도의 타당도를 일부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두 집단간의 비교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타당도 검증자료로는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가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한 ID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 조사 대상자가 아닌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한 다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본 조사 실시 이전에 먼저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표준도구로 입증한 후에 사용함이 바람직 함을 인식할 때, 본 조사에서 사용한 ID 척도 검증에 따른 조사 방법상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속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조사 방법상의 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 반응(R), 그리고 인식과 반응간의 차이(DIS)

성적 성가심은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과 대응 반응(R)을 각각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기 위하여 특성이 다른 다섯 유형에 속하는 19개의 다양한 성적 성가심 행동 유형을 척도 내용으로 포함시켰다.²⁹⁾

19개의 동일한 성적 성가심 행동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불쾌하게 인식하는지와 어느 정도 불쾌감은 상대에게 표시하는지를 Likert 방식(1~5)에 의해 각각 대답하도록 하여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에 대한 척도 점수와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R)에 대한 척도 점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두 척도의 문항 구조와 내용을 설계하였다.

이는 성적 성가심이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사실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성적 성가심 행동유형 및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몇몇 성적 성가심 행동에 한정되어 주로 각 행동에 대한 태도 조사에 그친 기존 시사 보고서성 조사에서의 조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적 성가심에 대한 개인의 대응 반응에 대한 조사는 그 개인이 성적 성가심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파악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성적 성가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반응 수준(강도) 자체만 가지고 바람직한 대처를 하는지를 파악하기는 무리이다. 개인이 성적 성가심에 대해 어느정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대응 반응의 적합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반응을 대칭적으로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된 성적 성

29) 신성자(3), 앞글, 102~106. I, R, 척도는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위해서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척도와 반응(R)척도는 19개의 성적 성가심 행동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다섯개의 하위척도(사회문화형, 유희형, 뇌물형, 협박형, 성행위 요구형)로 구성되었다. 두 척도의 Cronbach α 계수값에 의한 신뢰도(IR: .92, ER: .95)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성격이 다른 두 집단간의 I, R 각 척도값의 비교를 통해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여 두 척도(I, R)의 타당도가 모두 인정되었다.

가심에 대한 인식 척도(I)와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척도(R)를 사용하여 성적 성가심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반응을 성적 성가심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수량적으로 쉽게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는 구미의 선행 관련 연구 조사 방법에서의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한 연구조사 방법상의 진전(advance)를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 조사 방법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발표된 직장 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반응은 선행연구³⁰⁾에서도 밝혔듯이 모두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얻은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응답자들이 본 조사에서 보여준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직장 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을 여성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 의존성에만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개인이 성적 성가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지는 다양한 상황적인 변수들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직장 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해는 직장 환경, 가해자(harasser)와의 관계,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각종 지지체계 등의 성격 파악등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적인 변수에 대한 연구조사도 동시에 확대되어 파악해야 할 것이다.

IV. 조사 결과 분석

설정된 다섯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종속 변수들과 독립 변수들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30) 신성자(3), p.119.

1. 대인 의존심(ID)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R)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개인이 불쾌감을 상대(harasser)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가 개인의 대인 의존성이라는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대인 의존도를 측정할 수 있는 ID척도 점수를 평균값(mean)을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대인 의존도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들은 HID집단으로 분류하고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들은 LID집단에 분류하였다. 이 두 집단(HID, LID) 간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반응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R척도 값을 비교하였다. HID집단과 LID집단의 R값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표1> 대인 의존성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과의 관계

성적 성가심에 대한 반응(R) 집단특성(집단명)	평균값(R)	관찰수
1. 대인 의존도가 높은 집단(HID)	152.7	362
2. 대인 의존도가 낮은 집단(LID)	156.8	374
T 2.74 P < .0063		N=736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LID)의 응답자들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HID)의 응답자들보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입증> 이러한 발견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대응 수준은 여성들의 대인 의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2. 대인 의존성(ID)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

여성의 대인 의존성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외적 대응 반응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인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HID)과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LID) 간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을 어느 정도 불쾌하게 인식하는 지를 측정할 수 있는 I 척도값을 두 집단간의 T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표2>

<표2> 대인 의존성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집단특성(집단명)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	평균값(I)	관찰수
1. 대인 의존도가 높은 집단(HID)		157.1	362
2. 대인 의존도가 낮은 집단(LID)		160.4	374
T 2.25 P < .0025 N=736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보다 성적 성가심을 상대적으로 훨씬 덜 불쾌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2의 결과는 여성들의 대인 의존도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정도는 서로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준다. <가설 2 입증> 가설 1, 2가 입증됨에 따라 여성 심리의 대표적 특성인 대인 의존성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대응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반응(I-R) 유형과 대인 의존성(ID)

성적 성가심에 대한 개인의 정의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정신건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지 즉, 개인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응 반응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이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R)값에 의하면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응답자가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인식(I)하는 정도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성가심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별로 겪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심리적인 억압없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척도(R) 값 자체만으로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본 연구자는 직장 여성들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 반응에 대한 조사를 성적 성가심에 대한 그들의 인식정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잘 표현하며 대응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응답자들의 I 척도 값과 R 척도 값을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응답자들을 특성이 다른 네 유형의 집단 (HH, HL, HH, LL)으로 분류하였다.³¹⁾ 분류된 네 집단의 특성은 <표3>과 다음과 같다.

31) 신성자(3), 윗글, pp 109~110. I척도값과 R척도값을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기준은 응답자들의 I, R 척도값의 각각 평균치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법(mean split method)을 택했다. 각 척도의 점수 범위는 모두 최하 38점, 최고 190점까지 이를 수 있는데 I척도의 평균값은 158.74, R척도값의 평균은 154.72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은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불쾌감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대응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소 낮은 경향을 설명해준다.

<표3> 인식과 대응 반응 유형에 따른 네 집단의 특성

집 단 특 성	집단명
1. I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R값도 상대적으로 높다.	HH
2. I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R값은 상대적으로 낮다.	HL
3. I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R값은 상대적으로 높다.	LH
4. I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R값도 상대적으로 낮다.	LL

※ I ; 성적 성가심을 어느 정도 불쾌하게 인식하는 지를 측정하는 척도

※ R ;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함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 지를 측정하는 척도

분석 결과 응답자들중에 약 73%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이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HH)에 속하는 응답자가 약40%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LL)에 속하는 응답자들(32.8%)도 상당수 있었다.<표 4>

이 두 집단(HH, LL)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각기 대조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자신들이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비슷한 수준(강도)으로 불쾌함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므로 적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함으로 겪는 심리적인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물론 여권론적 관점에서 볼 때 HH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성적 성가심 문제에 대한 의식화(consciousness)가 잘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평가되고 LL집단에 속하는 여성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심리적 갈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의식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여성문제 해결 및 개선에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응답자들 중에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불쾌하게 인식하지만 불쾌감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 응답자들(LH)도 약 10.7% 정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응답자들(LH)과는 대조적으로 응답자들 중에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함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아주 소극적인 대응 경향을 보인 응답자들(HL)이 16.4%나 되어 전자의 집단(LH)보다 오히려 훨씬 많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여성들(HL)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mind)을 행동(action)으로 옮기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억압하면서 오는 좌절과 갈등이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기 주장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상당한 심리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려되므로 특히 이들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과 대응 반응(R)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응답자들을 특성에 따라 네 집단(HH, LL, LH, HL)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대인 의존성(ID)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변량분석(one-way ANOVA)과 SNK검증을 활용하였다.

<표4>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간의 차이에 따른 네 유형별로 본 대인 의존도

대인의존도(ID)		평균값(ID)	관찰수(%)	SNK검증
집단특성(I-R)				
1.	HH	121.76	294(39.9)	A
2.	HL	123.81	121(16.4)	A
3.	LH	120.26	79(10.7)	B
4.	LL	123.52	242(32.8)	A
		F 3.49	P < .0155	N=736

네 집단(HH, LL, LH, HL)중에서 대인 의존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LH집단으로 판명되었다. LH집단은 다른 세 집단(HH, LL, HL)보다 대인 의존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LH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대인 의존성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LH 집단 다음으로 대인 의존도가 낮은 집단은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도 높은 HH집단이다. 이는 대인 의존도가 낮은 경우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네 집단 중에 대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두 집단은 성적 성가심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HL집단과,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불쾌함을 표시하며 대응하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LL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의존성이 높으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응하는 수준이 낮다는 사실 또한 잘 뒷받침해 준다. <가설 3 입증>

表 4의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볼 때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개인이 불쾌하다고 생각한 것을 어느정도 표현하며 대응할 수 있는 지는 개인의 대인 의존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4.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반응(R)

여러 학습 이론가들은³²⁾ 아동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배운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개인의 성역할 사회화는 동성인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응답자들의 성장시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대응반응과 어느

32) E. MacCoby, C. Jackline, W. Mishel등, 주(11), (12) 참조할 것.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들을 먼저 성장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네 유형은 1)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유형, 2) 어머니가 지배적이고 아버지가 순종적인 유형, 3) 상호 민주적/협조적/동등한 유형, 4) 상호 분리적이면서 동등한 유형들이다.

<표5>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반응 정도

성적 성가심에 대한 반응(R)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PARIP)	평균값	관찰수 (%)	SNK 검증	LSD (T-검증)
1. 아버지가 지배적-어머니가 순종적	151.57	253(36.4)	A	1* 3,4
2. 어머니가 지배적-아버지가 순종적	154.12	83(11.9)	A	
3. 부모가 상호 민주적/협조적/동등함	156.12	278(40)	A	
4. 부모가 상호 분리적이며 동등함	156.35	81(11.7)	A	
P < .04		N=695		

응답자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남성)에게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을 응답자들이 성장시 부모의 상호 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여성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표 5> 이는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여성들은 남·여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순종적 특성을 많이 모방하고 학습하여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게 자기주장적 표현을 하며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면, 부모가 상당히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정에서 양육된 응답자들은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불쾌함을 표시하며 대응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설 4 입증>

응답자의 성적 성가심에 대한 대응반응(R) 수준(강도) 자체와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의 비교는 응답자가 성적 성가심에 대해 자신이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서

자신의 불쾌함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며 대응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여 응답자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인식(I)하는 정도와 불쾌함을 표시하며 대응(R)하는 정도간의 차이(DIS)를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다시 비교해 보았다.

5.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차이(DIS)와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응답자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쾌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지 못하는 소극성 정도를 성장시 응답자들의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비교해 본 결과 <표 5>에서 발견한 사실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표 6>

<표6>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과 성적 성가심에 대한 인식(I)과 반응(R)간의 차이(DIS)

인식과 반응의 차이(DIS)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PARIP)	평균값 (DIS=I-R)	관찰수 (%)	SNK 검증	LSD (T-검증)
1. 아버지가 지배적-어머니가 순종적	6.54	264(36.2)	A	1* 3
2. 어머니가 지배적-아버지가 순종적	3.77	86(11.8)	A	
3. 상호 민주적/협조적/동등함	2.12	292(40)	A	
4. 상호 분리적이며 동등함	3.30	87(11.9)	A	
P < .04 N=729				

네 집단중에서 성장시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가정에서 자란 응답자들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신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가설 5 입증>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것을 보고 학습해 온 여성들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게 자기 주장적 행동을 하기

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치가 부모로부터 내면화되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남성에게 여성들이 자기 주장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심리적 억압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V. 요약

자료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들은 약 50.6%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은 전체 응답자(736명)중에서 약 40%(294명) 정도 였다. 성적 성가심에 대하여 불쾌함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대에게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약 10.7%(79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적 성가심에 대하여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불쾌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정도도 낮은 여성들이 약 32.8%(242명)나 되었다. 약 16.4%(121명)의 여성들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4>

둘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이 상대에게 성적 성가심에 대한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능력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인 대인의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세째, 성장시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성적 성가심과 같은 이성과의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대응 반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장시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특성이 뚜렷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동등한 가정 분위기에서 양육된 여성들에 비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함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대응하는 수준(강도)자체가 훨씬 낮았고, 성적 성가심에 대해 자신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소극적인 대응반응을 보이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반응은 성장시 남성인 아버지 에 대한 여성인 어머니의 태도 및 행동의 재현(reenactment)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특히 동성인 부모가 성역할 사회화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는 학습 이론가들의 주장을 거듭 뒷받침하여 준다.

VI. 결론 및 사회사업 실천적 함의

여성의 대인 의존성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들의 자기 주장적 대응반응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성적 성가심 문제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종속적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장여성들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 여건에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기 주장적 대응반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업무비협조, 불리한 인사조치, 나쁜 소문 등)에 대한 현실적 위협은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

본 연구 조사결과를 통해서 명확해진 사실은 이러한 현실적인 위협감 이외에도 성

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자기 주장적 대응 반응의 중요한 장애요인을 “관계성 (relationality)”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여성 심리의 특성인 대인 의존성에서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법률적 제도적 접근과 아울러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지 않고서는 문제의 예방과 대처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여성들이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강한자(남성)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동성인 어머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투입(input)에 의해 전달 받으면서 성장한 여성들에게서 대인 의존성은 사회적 약자(여성)의 생활 적응 양상인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이들의 욕구와 감정을 보살핀다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신화(myth)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자기 지향적인 행동을 더욱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사업 실천의 가치는 개인을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복종케하고 격하(degradation)시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 결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원리로 삼고 있는 사회 사업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존방식(survival mode)으로서의 피동적 수용을 지양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감과 자신감을 개발하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돕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사업 실천의 가치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자기 주장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여성들을 돕는 실천에 잘 적용될 수 있다.

성적 성가심이 남·여 힘의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성적 성가심 문제발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문제 대처를 위한 여성들의 개인적 책임감은 반듯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반응은 남성들의 성적 성가심 행동을 계속 지속케하고 강화시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류(negative feedback)는 문제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사회사업 개입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을 깨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함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시하며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본 조사에서 드러난 직장 여성중 약 16.4%나 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은 개인차원에서의 이들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극적인 대응 반응이 성적 성가심 발생을 지속 또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서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 점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하여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불쾌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정도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많은 여성들(32.8%)을 위한 문제에 대한 의식화가 함께 요청된다.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 단위의 의식화 향상(consciousness-raising)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들끼리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면서 문제의 발생의 근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관련된 여성들의 의존성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역기능의 결과이다. 성역할 사회화가 단순히 남·여 역할의 차이가 아닌 위계적 양분인 점을 인식할 때 남·여 성역할 구분은 남·여 힘의 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근본적으로 맞물려있다.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의 남성을 대상으로하는 여성들의 자기 주장훈련, 여성들로 구성된 의식화 향상훈련을 활용한 사회사업 개입은 여성들의 대인 의존성의 개선과 함께 성적 성가심에 대한 여성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여성들의 개인 차원에서의 자기주장(self-assertion)능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주장(socio-political assertion)능력의 향상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무력감을 회복시켜 보다 자기 주장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여성 차별적인

사회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체계의 접근이 될 수 있다. 이제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돕기 위한 사회사업 개입방법의 빈곤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될 수 없고 사회사업 전문직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과 함께 실천 개입의 활성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